





**구림 전통마을 소개**

남한의 금강 국립공원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영암구림마을은 22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로 일본에 한자와 유학을 전한 왕인박사와 풍수지리설의 시조인 도선 국사 탄생지이며 전통기와집과 오래된 정자들, 2겨운 휴담 등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다.

구림마을에는 450여 년 동안 구림대동계가 존속되어 오고 있고 마을중심에 자리한 시유도기의 발상지 영암도기문화센터에는 다양한 전시관광 체험공방이 있어 관광객이 직접 교육을 병행한 도예체험을 할 수 있다.

남도관광의 명소인 이곳 구림마을에서는 주민들(왕인촌)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여 채의 한옥 민박집마다 독특한 개별체험프로그램이 있어 여느 체험마을과는 사뭇 다르다.

월출산국립공원과 왕인박사유적지, 도기문화센터 등 주변관광지와 왕인촌 주민자치회가 네트워크화되어 전통 및 향토문화 웰빙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이며 우리나라 체험관광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마을로 손꼽을 만하다.

**왕인촌(주민자치회)체험 소개**

홀기 하나하나 읽어 나가며 치르는 전통혼례, 한지를 가지고 연필꽃이·과반·손거울 등을(20~30분) 완성할 수 있는 종이공예체험, 옛 방식 그대로 되살려 만든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민박체험 등 왕인촌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.

**체험 교실**

<b>시기</b>	사계절가능(1월~12월)
<b>세부내용</b>	전통혼례체험, 떡메치기체험, 종이공예체험, DIY체험, 한옥민박체험, 구림답사체험, 향토음식체험 ※ 왕인문화, 왕인국화축제시 왕인촌 특별체험장 운영.
<b>체험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중식 + 전통혼례 + 종이공예(1작품) = 15,000원</li> <li>▪ 떡메치기, 종이공예, DIY, 고구마구워먹기 (재료비 별도)</li> <li>▪ 체험 1가지 (3,000 ~ 5,000원)</li> <li>▪ 한옥민박체험 : 한옥민박체험코너에서 신청 ※ 체험은 단체(20인 이상)일 경우 예약 가능, 예약은 일주일 전.</li> </ul>
<b>문의</b>	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061)470-2224